

한국 현대문학 작가 미주 순회 낭독회

‘김인숙 · 강영숙 작가,  
미국 5개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알리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한국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여류 작가 2인, 즉 『미칠 수 있겠니』, 『소현』의 작가 김인숙 씨와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 『아령 하는 밤』의 작가 강영숙 씨, 그리고 한국문학 번역가이자 북미 지역 한국문학 권위자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UBC)의 브루스 풀턴 교수가 미주 순회 낭독회에 동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은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청중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미국 중·서부의 3개 대학(Claremont College, Brigham Young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과 뉴욕에 있는 Korea Society에서 한국문학을 육성으로 직접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다섯 차례 진행된 낭독회는 두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한국어로 읽고, 이어 브루스 풀턴 교수가 이를 영어로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와 수강 학생 및 현지 교민들과 한국문학 동호인들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품 낭독을 마친 다음 작가들은 청중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문학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낭독회 일정

날 짜	행 사 장(학교)	도 시 명
11월 12일(화)	Stanford University	San Francisco
11월 13일(수)	Claremont College	LA
11월 15일(금)	Korea Society	New York
11월 18일(월)	Brigham Young University	Salt Lake City
11월 20일(수)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한국 현대문학 작가 미주 순회 낭독회’란……

‘한국 현대문학 작가 미주 순회 낭독회’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브루스 풀턴 교수와 국제교류진흥회(ICF)가 공동으로 1999년부터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쓴 국내 문학계의 주목받는 작가를 선발하여 미국 및 캐나다의 5~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작가가 자기 작품을 직접 낭독하는 작품 낭독회 및 세미나 등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여 외국인 청중들과 자유롭게 한국문학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한국문학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연도별 참가자

- |                 |                 |
|-----------------|-----------------|
| 1999년-최인호 · 박완서 | 2007년-김영하 · 서하진 |
| 2000년-최인호 · 오정희 | 2008년-이혜경 · 김애란 |
| 2002년-윤홍길 · 강석경 | 2009년-편혜영 · 조경란 |
| 2003년-임철우 · 양귀자 | 2010년-하일지 · 천운영 |
| 2004년-공지영 · 이인화 | 2011년-하성란 · 한유주 |
| 2006년-최 윤 · 최수철 | 2013년-김인숙 · 강영숙 |



## 왜 한국문학인가



강영숙(소설가)

여기는 어렵지만 에너지가 넘친다.

가능한 게 모두 다 동시에 있고 없네.

이따가 결과 나올 건데 상자를 열어야지.

- Jessica Sagers의 시조  
〈슈뢰딩거의 대학원 신청〉

위의 작품은 이번 낭독 투어의 마지막 장소인 유타 주의 브리검 영(Birgham Young)대학교 시조 짓기 수업에서 미국인 여학생이 낭독한 것이다. K-POP의 영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 시조를 읽고 쓰는 풍경은 예상하지 못했다. 2009년 여름, 아이오와 국제창작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4년 만에 미국에 갔다. 전에 비해 달라진 한국어의 위상이랄까 한국문화 예찬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매디슨의 위스콘신(Wisconsin)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에 참가했을 때 어린 학생들은 그냥 한국이 좋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때 그냥 좋다는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다.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2013 Author Tour Schedule: 11/11~22'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일정표를 받은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시작됐다.

김인숙 작가와 나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프로그램의 인솔자이며 기획자, 번역가인 브루스 풀턴(Bruce Fulton) 교수를 만났다. 첫 번째 낭독회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Stanford)대학교에서 열렸다. 작가들이 한국어로 작품을 먼저 읽고 풀턴 교수가 영어로 작품을 읽는 순서였다. 그렇게 네 개의 대학과 뉴욕 시 맨해튼의 <Korea Society>에서 낭독회가 진행되었다. 김인숙 작가는 『칼에 찔린 자국』과 『먼 길』, 나는 『리나』와 『갈색 눈물방울』을 읽었다. 낭독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한국어로 작품을 더 읽어달라는 요청에서부터 번역된 문장에 대한 궁금증, 한류의 영향과 파급 효과까지 질문은 다양했다.

스탠퍼드대학교에 이어 클래머몬트 맥케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 뉴욕의 <Korea Society>, 매디슨의 위스콘신(Wisconsin) 대학교,

유타 주 솔트 레이크 시티의 브리검 영대학교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섯 번 비행기를 타고 내렸고 여섯 번 짐을 싣다가 풀었다. 자주 시차를 잊었고 때때로 고단하긴 했다. 그러나 낭독회에 청중이 모여들고 한국어로, 영어로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이상한 집중력과 생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2013년 지금, 한국문학이 아니면 문학을 논할 수 없다는 듯이 열심히 대답하고 또 대답했다. 밤이 되면 그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좋았던 질문에 대한 후속 토론도 했고 앞으로 진행될 대학의 청중들을 예상하면서 더 나은 낭독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작가가 된 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단히 매력적인 낭독 투어였다. 그래서 내게는 꽤 여운이 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문학 번역, 한국문화 전공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작품을 먼저 읽고 낭독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질문이 많았다. 작가들과 청중들의 질문을 통역해주는 역할은 주로 교포 학생들이 맡았는데 뛰어난 실력과 순발력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주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다프나 교수도, 브리검 영대학교의 피터슨(Mark Peterson) 교수도 한국어가 유창했다. 브루스 풀턴 교수의 친구로, 풀리처 상 후보에 오른 작가 수잔 최(Susan Choi)가 뉴욕 낭독회에 왔는데, 한국문학에 대한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을 그 나라의 언어로 읽거나 번역을 통해 읽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 번역을 고려해 소설 문장을 쓰거나 외국인 독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설을 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낭독 투어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외국인 독자들도 단번에 문학작품의 핵심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문학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면서도 위대한 힘 때문인지도 모른다. 낭독이 이어질수록, 토론이 이어질수록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 작가의 의도는 묘하게도 통했다. 물론 통역을 위한 시간은 걸렸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

브리검 영대학교의 낭독회가 끝난 날 밤 풀턴 교수, 김인숙 작가와 함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마지막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아침 일곱 시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일행은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새벽 무렵 호텔에서 나와 솔트 레이크 시티 공항에 도착했다. 거기서 브루스 풀턴 교수는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김인숙 작가와 나는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12일간의 낭독 투어는 끝났는데 아직도 귀에는 풀턴 교수의, 김인숙 작가의 낭독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청중이 했던 질문에 대해 열심히 대답하기는 했지만, 채 하지 못한 대답을 시도하느라 머리가 복잡하다. 예를 들면 왜 영미권의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아주 기본적인면서도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들 말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신 한국어 과목 관련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속 깊은 배려와 환대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한국문학을 위해 애쓰는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 부부, 김인숙 작가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건내고 싶다. 199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진흥회에 감사드립니다.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역사가 깊어져서 작가 개인에게도, 영미권 청중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